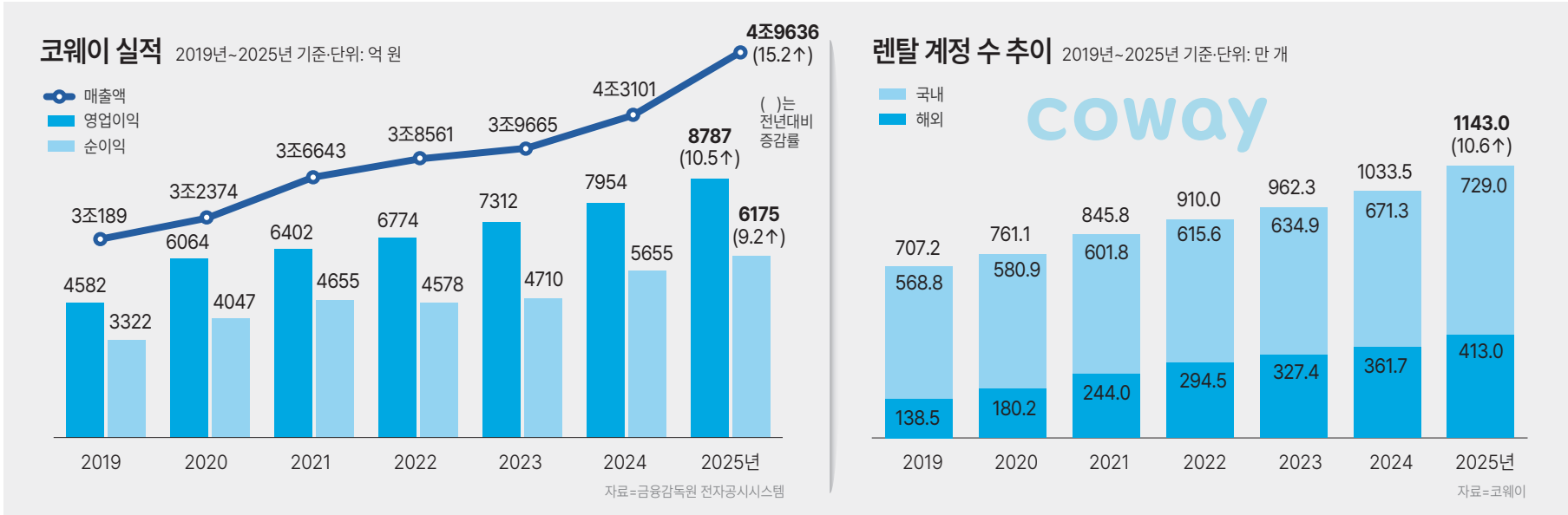


코웨이, 사상 최대 실적... ‘매출 5조 시대’ 성큼

지난해 매출 4조9636억... 말레이 시장서도 1.4조 호실적
렌탈 성장세 뚜렷... 비렉스 침대·안마의자 새 성장 동력
자사주 소각·고배당 병행... 주주가치 높이기에도 박차

코웨이가 제품 경쟁력과 글로벌 확장 전략을 앞세워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매출 5조 원 시대’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실적 개선과 함께 자사주 소각·고배당 정책을 병행하며 주주가치 제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웨이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4조 9636억 원, 영업이익 8787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각각 15.2%, 10.5%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실적이다. 당기순이익은 6175억 원으로 9.2% 늘었다. 4분기 순이익은 147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4% 급증했다. 금융수의 증가와 함께 일회성 비용을 포함한 기타 손실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같은 기간 순이익률도 11.5%로 2.3%포인트 개선됐다.

2020년 개시된 금융리스 계약의 만료로 ‘소유권 도래 계정’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구간에 진입했지만, 지난해 전체 렌탈 계정은 1143만 개로 10.6% 증가했다. 국내는 729만 개(8.6%↑), 해외는 413만 개(14.2%↑)로 고르게 성장했다. 국내 연간 렌탈 판매량은 185만 대를 돌파해 최대치를 경신했다. 슬립힐링케어 브랜드 ‘비렉스(BEREX)’는 연간 매출 7199억 원을 올리며 핵심 사업군으로 자리 잡았다. 정수기에 이어 침대·안마의자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한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해외 법인도 약진했다. 최대 시장인 말레이시아는 매출 1조4095억 원, 영업이익 2387억 원을 기록했다. 미국 법인은 4분기 88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흑자 전환했



고, 태국·인도네시아 등 신흥 시장에서도 계정이 빠르게 늘고 있다. 해외 매출 비중은 40% 수준까지 확대됐다. 코웨이는 실적 발표와 함께 주주환원책도 강화했다. 주당 1940원의 결산 배당을 결정하고, 보통주 114만여 주를 소각하기로 했다. 최근 40% 수준의 주주환원율을 달성했으며, 2027년까지 이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고배당 기업 요건 충족을 위해 현금배당 비중을 확대하고 배당성향 25% 이상을 유지할 계획이다. 재무 안정성도 관리하고 있다. 순차입금/EBIT 비율은 2.1배로 목표치(2.5배 이내)를 유지했다. 적정 레버리지 전략을 통해 자본 효율성과 신용 리스크를 동시에 관리하는 ‘로우 리스크’ 기조를 이어간다는

설명이다. 지배구조 개선 노력도 병행 중이다. 사외이사 비율을 67%까지 확대하고,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와 선임 독립이사 제도를 도입해 최대주주와의 이해상충 우려를 차단했다. C레벨이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컨퍼런스콜도 도입해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코웨이는 올해 매출 5조4480억 원, 영업이익 9550억 원을 가이던스로 제시했다. 기존 2027년 목표였던 매출 5조 원 달성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제품 다각화와 글로벌 확장이 동시에 성과를 내며 체질 개선이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나윤 기자 nykim@skyedaily.com

한미반도체, 차세대 HBM5·6용 와이드 TC 본더 연내 출시

HBM 양산용 하이브리드 본더 공백 보완한 신제품 개발
2030년까지 시장 연평균 13% 증가... “매출 성장 가속”

한미반도체가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 생산을 위한 TC 본더 신제품을 2026년 내에 출시한다. 한미반도체는 지난해 HBM4를 출시한 데 이어 올해 하반기 HBM5와 HBM6 생산을 위한 ‘와이드 TC 본더’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TC 본더는 반도체 후공정에서 고온과 압력을 가해 D램 칩들을 수직으로 쌓아 올리고 기판과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핵심 장비다. HBM 메모리 생산이 집 간의 미세한 마이크로 범프를 결합해 견고한 회로를 형성한다. 한미반도체는 와이드 TC 본더가 기술적 난제로 상용화가 지연되는 HBM 양산용 하이브리드 본더의 공백을 보완할 새로운 형태의 TC 본더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

했다. 또한 한미반도체는 2020년 개발한 HBM 하이브리드 본더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2029년으로 예상되는 16단 이상 HBM 양산 시점에 맞춰 차세대 첨단 하이브리드 본더 출시를 위해 고객사와 소통하고 있다. 한미반도체의 공격적인 투자는 최근 인공지능(AI) 붐에 맞춰 반도체 장비 생산 능력을 확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AI 열풍이 계속되고 AI 서버에 필수적인 HBM 수요도 늘어나며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설비 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시장조사 업체 테크인사이드에 따르면 TC 본더 시장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약 13.0%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힘입어 한미반도체 또한 2025년 연간 매출 5767억 원을 기록해 1980년 창사



한미반도체가 지난해 HBM4 이후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 생산을 위한 TC 본더 신제품을 연내 선보인다. 한미반도체

이래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한미반도체는 글로벌 TC 본더 시장 점유율 71.2%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출 성장도 TC 본더의 힘이 컸다. 한미반도체가 차세대 TC 본더를 출시하면 매출 성장률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반도체 관계자는 “올해 HBM 수요 증가에 힘입어 올해와 내년 최고 실적을

경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차세대 제품 개발과 생산 능력 확충을 위해 글로벌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리더십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미반도체는 AI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신규 장비를 출시하고 글로벌 우주항공 분야 핵심 장비 판매에도 적극 나서는 등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통신 3사, 설 연휴 특별 소통 대책 가동

통신 3사는 설 명절과 동계올림픽 기간을 맞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 소통 대책을 가동한다고 9일 밝혔다. SK텔레콤(SKT)은 전국적으로 사회사, 관계사 및 협력사 전문 인력을 포함해 일 평균 약 1400명, 연인원 86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특별 소통 상황실을 운영하고 24시간 통신 서비스를 모니터링한다. SKT는 설 연휴 동안 예상되는 데이터 트래픽 증가에 대비해 전국 주요 기차역, 버스 터미널, 공항, 공원묘지 및 성묘지 등 1200여 개소에 기차국 용량 점검 조치를 완료했다. 설 당일에는 데이터 트래픽이 평소 대비 최대 1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커버리지 최적화를 통해 원활한 통신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SKT는 설 연휴 기간 동안 가족 간 내부인사를 돕기 위해 2월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영상통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KT는 설 연휴 기간 귀성 및 귀경으로

인파가 집중되는 공항, KTX 역사, 고속도로 인근, 터미널과 주요 상권 등 전국 1200여 개소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사전 점검과 집중 관리에 나선다. 과천 네트워크 관제 센터를 중심으로 24시간 종합 상황실과 전국 현장 상황실을 가동할 계획이다. 특히 2월부터 6개월간 제공되는 ‘고객 보답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명절 기간 특정 지역 무선 인터넷 이용량이 급증하면 다른 지역의 여유 네트워크 지원을 활용하도록 사전 점검과 준비를 완료했다. LG유플러스는 비상 상황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 서울 마곡 사옥에 종합상황실을 열고 24시간 집중 모니터링에 돌입한다. 전국 연휴 기간 네트워크 트래픽 증가가 예상되는 고속도로, 휴게소, KTX·SRT 역사, 버스터미널, 공항 등에 있는 5G 및 LTE 기지국의 사전 점검 등을 통해 품질을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적화 작업을 진행한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비쁜 일상 속, 당신을 토닥여줄 요가 에세이

느려도 괜찮아

아사나(요가 자세)를 할 때 찾아오는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아팠지만 몸을 늘리고 비틀고 거꾸로 서는 과정에서 마음이 말을 걸었다.

너무 애쓰지 마라.

괜찮다.

일만 하지 말고 좋아하는 것도 하고 살아가.

한영임 지음 | 272쪽 | 15,000원 | 도서출판행복에너지